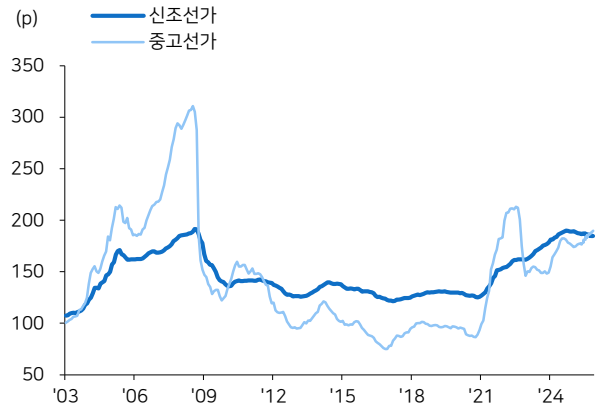
2025. 11. 17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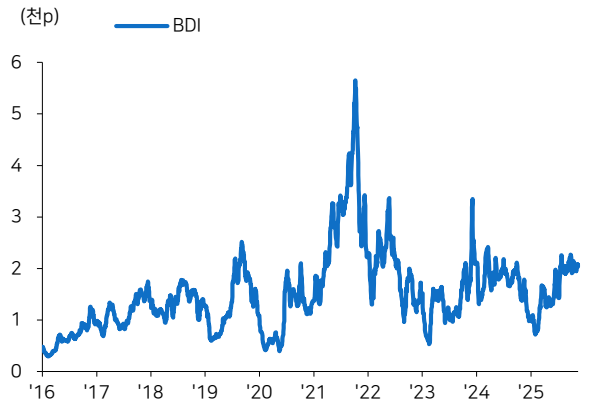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9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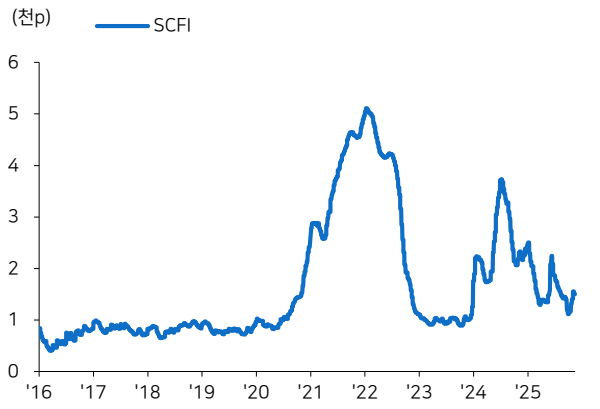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9.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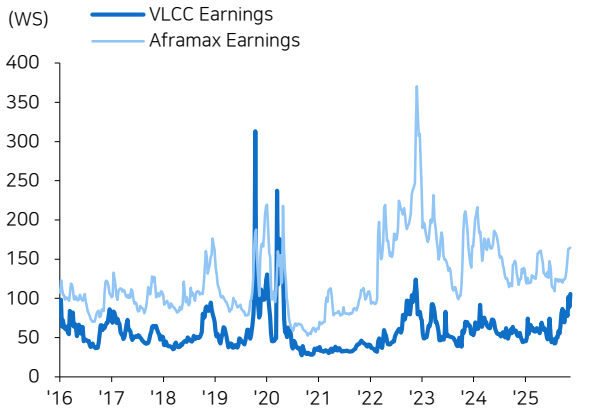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77.0p (+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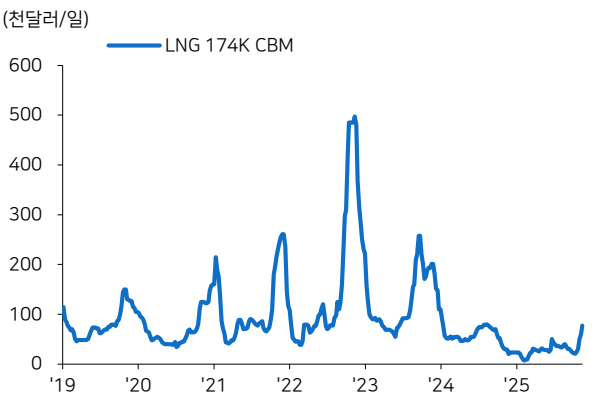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51.4p (-43.7p WoW)



VLCC Spot Rate 105.7WS (+16.7p WoW)



LNG Spot 운임 77.5천달러 (+17.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상업·군함 '韓 건조' 가능성↑ 美 상무부 대표단, HD 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극비 시찰 — 더구루

미국 상무부 대표단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앞서 HD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 한화오션 · HJ중공업을 방문해 건조 역량과 MRO 협력을 점검했다고 보도됨. 양국은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조선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조선소 현대화 · MRO · 인력 양성 · 공급망 강화 등 전방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약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들의 주도 하에 미국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으로 알려짐. (https://buly.kr/jaMXqi)

HD Hyundai secures tanker newbuilding contracts worth $176m — TradeWinds

HD현대중공업이 '오세아니아에 기반을 둔' 선사가 157,000dwt 원유운반선을 계약했다고 발표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발주 주체는 Stealth Maritime이라고 전해짐. Stealth Maritime은 2척 확정 + 2척 옵션 발주를 추진 중이며, 선종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8년 하반기까지 두 척이 인도될 예정이며, 공시된 계약 금액 2,562억원, 척당 8,800만달러는 현재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suezmax급에 해당한다고 알려짐. (https://buly.kr/GP3nyHM)

삼성중공업, 베트남 선박 생산 파트너 물색...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기대 — 더구루

삼성중공업이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삼기 위해 현지 조선 파트너를 물색하며 중소형선 중심의 신규 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베트남에서의 건조는 중국 규제 강화 회피, 생산비 절감,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2014년 'V프로젝트' 이후 베트남 조선소 설립을 꾸준히 검토해왔고 올 5월 PetroVietnam과 조선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현지 조선소 구축 논의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6XnMx2M)

Aramco to take stake in Woodside's $17.5 billion Louisiana LNG project — Upstream

Aramco가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의 방미 기간 동안 Woodside의 Louisiana LNG와 Commonwealth LNG로부터 각각 연간 최대 200만톤씩을 확보하는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Woodside 프로젝트에서는 지분 인수까지 병행하는 구조로 2029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며, Commonwealth LNG는 연내 FID가 기대되는 가운데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이 추진됨. Aramco는 NextDecade Rio Grande 물량 확보에 이어 미국에서 LNG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EI4iCbn)

한화오션, 영국·캐나다 해군 MRO 도 수주...글로벌 시장 공략 — 머니투데이

한화오션이 영국 HMS Richmond와 캐나다 HMCS Max Bernays의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군함 정비 시장에서 실적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8월 영국 해군 호위함 HMS Richmond의 MRO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쳤고, 지난 9월에는 캐나다 해군 초계함 HMCS Max Bernays도 부산 해군기지에서 정비해 캐나다 정부의 60조원대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 긍정적인 실적을 확보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지난해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사업을 수주한 이후 실적을 꾸준히 쌓아오고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7bHuw40)

Fledgling Greek owner Venergy plots major expansion with fresh newbuilding batch — TradeWinds

Vyron Vasileiadis가 중국과 한국 조선소들과 6척 확정 · 6척 옵션의 신규 LoI를 체결해 MR2 · LR2 탱커와 1,900TEU 컨테이너선으로 보유 선대를 19척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현재 케이조선에 2027년 1분기 인도 예정인 신규 MR2 탱커 4척을 확정 발주한 상태이며, 업계에 따르면 동일 조선소와 추가로 2척 확정 + 2척 옵션의 MR2 발주를 논의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해짐. 해당 신규 계약이 확정되면 최신 스크러버 장착 고사양 MR2 4척은 2027년 3분기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7x7Qnel)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